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 부문별 1차 소모임 [역사-문화-관광] 부문 보고서 -

일 시	2026년 8월 2일(일) 14:00 ~ 16:00
장 소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201호 (충북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성원보고	총 15 명 중 12 명 참석
참 석 자	진행위원 : 도선봉(퍼실), 이영미(기록), 김향운(미디어) 일반단원 : 김태준, 윤미림, 박주은, 박한나, 이해남, 이일호, 윤미정, 이석호, 조미정 지원센터 : 홍윤경
미션 1. 부문별 단위 소개	
도선봉 퍼실팀장	- 전공과 연구 분야 ▷ 건축을 전공했으며, 건축역사를 기반으로 옛 건축과 근대건축을 중심으로 연구 ▷ 청주와 지역 건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음 - 주요 경력 ▷ 충북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함 ▷ 이후 서울에서 약 10년 동안 고려대학교 등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연구소장 등의 역할을 수행함 ▷ 해외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몽골 대학에서 약 3년 반 동안 근무한 뒤 청주로 돌아옴 - 청주의 역사·건축자원에 대한 관심 ▷ 청주로 돌아온 뒤 약 2년 동안 청주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 중 ▷ 청주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와 건축의 흔적을 되살리는 활동을 시작 ▷ 지역의 흔적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발굴하고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청주 곳곳의 역사·건축 흔적이 제대로 발현되어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람 ▷ 역사·건축자원이 시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장소성과 매개체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사 진	

이영미
기록팀장

- 거주 배경과 원도심에 대한 관심
 - ▷ 시청 근처에서 거주하다가 중앙동으로 이사함
 - ▷ 중앙동으로 이사한 뒤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고 가족 단위의 생활인구가 거의 보이지 않는 원도심의 모습을 체감함
 - ▷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원도심 활성화에 관심을 갖게 됨
- 청주 관광에 대한 인식
 - ▷ 청주는 ‘갈 데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가까이 살펴보면 방문할 곳은 적지 않다고 생각함.
 - ▷ 관광자원과 장소를 제대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봄.
 - ▷ 수암골과 중앙동 등 과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았던 장소도 현재는 관광지로서의 활력이 약해졌다고 느낌
- 외국인 관광의 지역경제 연계 문제
 - ▷ 외국인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더라도 원주민이 직접 지역을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구조가 부족함
 - ▷ 외부 여행업체와 해설사가 관광 전 과정을 운영, 지역 주민과의 접점이 거의 없음
 - ▷ 중국인 관광객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당과 숙박시설만 방문해 관광수익이 지역에 남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 관광객 유치뿐 아니라 소비가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
- 지역활동 경험
 - ▷ 원도심에 거주하면서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음.
 - ▷ 통장과 주민자치 관련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와 바람
 - ▷ 시민계획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됨
 - ▷ 도시계획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되기를 바람

사
진



김향운
미디어팀장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청주 안에서 가족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도 주말을 즐길 수 있는 관광·여가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 상당산성과 상당구청 주변 공간을 가족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 제안 1 : 상당산성 가족형 주말 관광공간 조성

- ▷ 상당산성은 비나 눈이 올 때도 풍경이 좋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가볍게 둘레길을 걷기 좋은 곳임
- ▷ 주말마다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상당산성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 ▷ 둘레길을 걷고 난 뒤 아이들과 함께 먹고 쉬며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
- ▷ 작은 텐트를 치고 식사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해, 멀리 가지 않아도 가족이 가볍게 찾는 주말 관광공간으로 만들 것을 제안함

- 제안 2 : 상당구청 주변 가족형 공원 및 문화프로그램 조성

- ▷ 상당구청 주변은 넓은 부지와 좋은 경관을 갖추고 있으며, 유채꽃 등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사진을 찍으러 찾고 있음
- ▷ 현재는 방문객들이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머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부족함
- ▷ 어린이날 축제와 같이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계절별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상당구청 주변을 대청댐 로하스공원처럼 작은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는 가족형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사
진



	- 주요 활동과 전공 ▷ 청주대학교 근처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음 ▷ 역사·문화콘텐츠를 전공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최근 관광과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청주는 관광이 유독 잘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 청주의 관광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시민계획단에 지원함
김태준	사 진 
윤미림	사 진  - 청주 정착과 생활 배경 ▷ 오송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주로 이사 온 지 1년이 조금 넘음 ▷ 주재원 생활로 폴란드에서 5년 동안 생활했으며, 그전에는 구미에서 거주함 - 청주에서의 생활 ▷ 초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1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음. ▷ 청주에서 역사·문화·관광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반 시민임 - 시민계획단 활동에 대한 다짐 ▷ 시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안하고자 함

박주은	- 오송 정착과 생활 배경 ▷ 오송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사 온 지 1년 정도 됨 ▷ 오송이 청원군에 속해 있다가 청주시 흥덕구로 편입된 지역이라는 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오송에 대한 관심 ▷ 아이들이 오송을 조금 더 잘 알고 직접 체험하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음 ▷ 오송은 KTX 전국 노선이 지나는 곳이라, 오송역을 잘 활용하면 오송과 청주시가 함께 연계되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오송의 관광·문화·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연구해보고자 시민계획단에 참여함 사 진 
박한나	- 주요 활동 ▷ 오송에서 왔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음 - 청주에 대한 인식 ▷ 청주는 '노잼 도시'라는 틀이 강하게 박혀 있다고 생각함 ▷ 청주 안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지만, 지나치게 '노잼 도시'라고 불리고 있다고 느낌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시민들의 계획을 통해 청주가 '노잼 도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함 사 진 

	- 거주와 생활 ▷ 청주 분평동에 거주하고 있음 - 관광에 대한 관심 ▷ 예전부터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으며,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 관광에도 관심을 갖게 됨 ▷ ‘역사·문화·관광’이라는 부문 제목이 궁금하고 흥미롭게 느껴짐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평소 좋아하던 여행과 관광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 부문에 참여하게 됨
이해남	사 진 
이일호	사 진 - 주요 경력과 활동 ▷ 약 20년 동안 한옥을 짓고 문화재를 복원하는 일을 해오고 있음 ▷ 전통건축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전통문화와 건축에 대해 고민해 왔음 ▷ 직지남성합창단에서 약 10년 동안 활동하고 있음 -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에 대한 관심 ▷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전통의 기본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지역만의 공동체 문화와 예술을 역사·문화·관광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청주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고 찾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참여함 

윤미정

- 주요 활동

- ▷ 마을활동가·농촌활동가·기록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음
- ▷ 청주문화도시 초창기부터 기록가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기록원에서 기록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음
- ▷ 청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동·청소년의 문제와 입장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음
- ▷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음

- 공정여행과 관광상품 개발

- ▷ ‘라운하제’ 공정여행팀을 이끌고 있음
- ▷ 청주에 맞는 관광기념품(굿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음
- ▷ 청주 곳곳의 문화재와 지역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청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인식

- ▷ 청주에는 마한시대와 석기시대부터 이어진 역사·문화가 있지만 이를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 청주에 사는 시민들도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봄
- ▷ 중앙공원은 청주의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박물관과 같은 곳이지만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함
- ▷ 청주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지만 시민들이 이를 잘 모르고 있음

- 청주 관광에 대한 문제의식

- ▷ 청주는 관광객들이 머물지 못하는 곳이라고 생각함
- ▷ 청주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활용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함
- ▷ 역사·문화 자원을 관광과 연결해 시민과 외부 방문객들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봄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2045 계획에도 참여해 의견을 정책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
- ▷ 청주의 역사·문화 이야기가 관광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함

사진



이석호

- 거주와 현재 활동

- ▷ 상당구 탑동에 거주하고 있음
- ▷ 회사에서 퇴직한 뒤 최근에는 역사를 배우고 있음

- 시민계획단 지원 당시 제안

- ▷ 시민계획단 지원서에 청주읍성과 남석교 복원에 관한 의견을 작성함
- ▷ 청주시의 원도심 활성화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청주 수목원 조성을 제안함
- ▷ 과거에도 시장에게 관련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느낌

- 도심 수목원 조성 제안

- ▷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한밭수목원을 자주 이용함
- ▷ 한밭수목원이 갑천의 물줄기와 연계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 청주시청 재건축과 주변 부지 확보를 계기로 무심천 구역까지 연계한 도심 수목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외곽지역이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원도심을 살리는 핵심 공간이 필요하다고 봄

- 청주읍성과 남석교 복원

- ▷ 청주읍성은 원래의 돌을 모두 찾기 어렵더라도 새로운 돌을 활용해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남석교는 80m가 넘는 긴 돌다리로, 현재는 문혀 있는 상태임
- ▷ 청주읍성과 남석교 복원은 고도로서 청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함
- ▷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민들도 있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복원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도선봉 퍼실티장 부연설명

- ▷ 남석교는 약 81.6m로 기억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돌다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문혀 있음
- ▷ 남석교를 발굴해 다시 복원하는 데 찬성함
- ▷ 다만 복원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 남석교 투어를 진행하며 시작점을 안내할 때 시장 주민들이 몰려와 반대할 정도로 갈등이 큼
- ▷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업계획과 복원계획이 수립됐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석호

- **획일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

- ▷ 청주시 주택의 약 4분의 3이 아파트일 정도로 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봄
- ▷ 청주가 수도권 도시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면서 도시의 개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함
- ▷ 전국의 도시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청주만의 차별화된 역사와 공간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함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청주읍성, 남석교, 도심 수목원처럼 청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굵직한 사업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자 참여함.
- ▷ 청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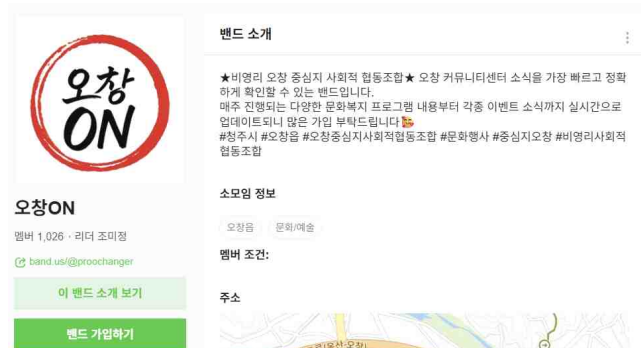
사
진



조미정

- **오창 거주와 지역활동**

- ▷ 오창에 거주하며 약 10년 동안 지역에서 이장 활동하고 있음
- ▷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살고 있지만 다른 도시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느낌
- ▷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오창 ON' 밴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조미정

- 문화정보 공유 활동

- ▷ ‘오창 ON’ 밴드에는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올리고 있음
- ▷ 밴드 회원은 1천 명이 넘으며, 게시물을 올리면 바로 약 80명이 확인할 정도로 주민들의 관심과 공감에 높아,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공감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음
- ▷ 청주시의 문화콘텐츠와 즐거운 소식을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함

- 청년층을 위한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

- ▷ 30대 초·중반인 자녀들이 오창에는 갈 곳과 즐길 곳이 없다고 이야기함
- ▷ 젊은 사람들이 즐기고 머물 수 있는 문화공간과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인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고민하고 있음
- ▷ 시민계획단 활동을 통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문화콘텐츠와 공간을 발굴하고자 함

- 창업과 문화콘텐츠 활동

- ▷ 꽃을 좋아해 ‘자이언트 플라워’를 활용한 포토존 사업을 시작함
- ▷ 큰 꽃뿐 아니라 작은 종이꽃도 제작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준비 중

- 시민계획단 참여 동기

- ▷ 청주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오창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고자 참여함
- ▷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즐길거리를 확충하는 데 의견을 보태고자 함
- ▷ ‘오창 ON’ 밴드를 통해 시민계획단에서 알게 된 문화 소식과 지역의 즐거운 소식을 주민들과 공유하고자 함

사
진



미션 2. 부문별 주요 현안 공유 (현안의제 별)		
현안	제안자	세부 내용
1. 청주 2천 년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과 시민참여형 마스터플랜 수립	이일호	- 청주 역사문화 마스터플랜 수립 ▷ 청주가 가진 역사·문화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보존·활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 ▷ 시민들도 청주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역사문화자원을 함께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일호	- 청주 2천 년 역사 스토리텔링 구축 ▷ 청주는 2천 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이므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음. ▷ 청주가 가진 오랜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을 마련해야 함 ▷ 시민이 먼저 청주의 역사를 학습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타 지역 방문객과 외국인에게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
	윤미정	- 청주 고려시대 역사와 문화의 재조명 ▷ 청주는 구석기시대와 백제시대 등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고려시대의 역사도 중요하다고 봄 ▷ 직지와 철당간을 비롯해 청주의 행정 기반이 고려시대에 형성됐지만, 현재는 고려의 역사보다 조선시대 역사가 주로 부각되고 있음 ▷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와 중심 주제를 마련할 때 고려문화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문화재 야행에서 고려시대 문화를 주제로 운영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경험 있음
	이일호	- 지역 문화재 보존과 체험·관광·교육 연계 ▷ 지역 문화재를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관광·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이 함께 마련돼야 함.
	이일호	- 전통문화 장인의 활동 기반 마련 ▷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과 문화를 가진 장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함 ▷ 장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기술을 계승할 수 있는 공간과 기반 마련 필요

1. 청주 2천 년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과 시민참여형 마스터플랜 수립	이일호	- 시민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역사도시 조성 ▷ 행정 중심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의 발굴·보존·활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 ▷ 시민의 경험과 기억, 제안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는 시민 주도형 역사문화도시를 만들어가야 함
	이석호	- 시민들이 청주에 대한 정서와 지역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학습 필요 ▷ 시민의 지역 이해와 발견 역량 강화 → 청주가 어떤 관광 아이템을 가질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시민들이 청주의 역사와 문화, 정서를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매력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함 → ‘노잼도시’나 ‘꿀잼도시’와 같은 표현을 만드는 것보다 청주의 실제 매력을 알아보는 시민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함 ▷ 관광 이전에 지역의 매력과 정서 회복 → 시민들이 청주의 매력을 먼저 발견하고 키워야 이를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봄 → 청주문화원에서 만든 책을 읽으며 잊고 지냈던 청주에 대한 정서를 회복한 경험을 소개함 → 지역의 역사와 생활문화가 담긴 자료를 시민들이 함께 읽고 학습하는 과정도 청주의 매력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이석호	- 청주의 고유한 매력을 먼저 발견하는 관광정책 ▷ 여행·관광·답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 → 여행과 관광, 답사는 각각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봄 → 청주는 바닷가나 특별한 관광코스를 가진 도시가 아니므로 다른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관광을 개발하기는 어려움. ▷ 청주의 매력에 대한 선행 탐색 → 관광개발에 앞서 청주가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과정이 중요함 → 청주의 고유한 매력을 찾은 뒤 이를 서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관광을 개발해야 함 → 다른 지자체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따라가거나 관광객을 끌어와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는 청주의 매력을 살리기 어려움

	이석호	- 청주읍성을 청주의 대표 역사문화공간으로 복원 ▷ 청주읍성 복원의 필요성 → 청주읍성 복원은 고도로서 청주의 역사적 정체성을 되살리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봄. ▷ 청주읍성의 규모와 관광자원 가능성 → 해미읍성과 진주성처럼 읍성은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원 → 청주읍성을 복원한다면 해미읍성보다 훨씬 큰 규모의 평지 읍성이 될 수 있다고 봄. → 진주를 떠올릴 때 진주성이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는 것처럼, 청주읍성도 청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음. ▷ 원형자료를 활용한 복원 검토 → 청주읍성의 옛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조감도와 사진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옛 읍성의 형태를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봄. → 복원의 가능성보다 이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 ▷ 옛 성돌 부족에 대한 현실적 접근 → 청주읍성의 옛 성돌은 하수도와 도시 기반시설 등에 사용돼 대부분 찾기 어려운 상황임. → 일부 성돌을 찾아 복원한 사례가 있지만, 모든 옛 돌을 찾아 복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반드시 옛 성돌만을 고집하기보다 새로운 돌을 사용해서라도 읍성의 형태와 역사적 의미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봄. ▷ 막대한 복원비용과 현실적 한계 → 성곽 복원에는 매우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서울의 한양도성 복원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추진되고 있음. → 서울과 청주는 전체 예산 규모에 큰 차이가 있어 동일한 방식의 전면 복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 → 복원 필요성과 함께 청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 ▷ 시민 설득과 단계적 추진 필요 → 청주읍성 복원은 예산뿐 아니라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과정도 중요함. → 전면 복원이 어렵다면 일부 구간이나 주요 성문부터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청주읍성을 원도심의 역사문화공간이자 청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음.
--	-----	---

2. 청주
역사유적의
체계적
보존·복원과
개발로 인한
훼손 방지

이석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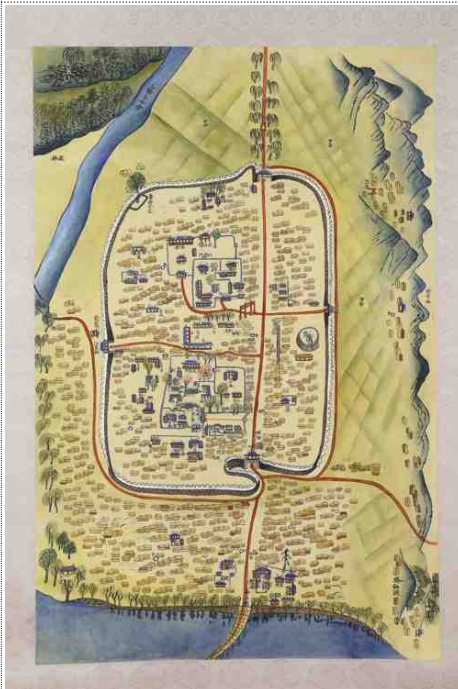
- 남석교 복원을 통한 청주 정체성 회복

▷ 남석교의 역사적 가치와 현재 상황

- 남석교는 80m가 넘는 긴 돌다리로, 현재는 문혀 있는 상태임.
- 청주읍성과 남석교는 청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문화자원이라고 생각함.

▷ 복원 추진에 대한 제안

- 현실적으로 복원이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복원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민들도 있어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복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주읍성도(漢州府城圖)에 그려진 남석교와 직조전성



1920년대 남석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복교동에 위치한 돌다리, 1900년대 남석교 모습

도선봉

- 남석교 복원 과정의 갈등과 한계

- ▷ 남석교는 약 81.6m로 기억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돌다리라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문혀 있음
- ▷ 남석교를 발굴해 다시 복원하는 데 찬성함
- ▷ 다만 복원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 남석교 투자를 진행하며 시작점을 안내할 때 시장 주민들이 물려와 반대할 정도로 갈등이 큼
- ▷ 보상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차례 사업계획과 복원계획이 수립됐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2. 청주 역사유적의 체계적 보존·복원과 개발로 인한 훼손 방지	이석호	- 흥덕사지 인근 청석탑과 유물 발굴 계기로 직지의 고장 정체성 확립 ▷ 청주시 신문을 통해 운천동 흥덕사지 인근에서 청석탑과 여러 유물이 발견됐다는 내용을 확인함 ▷ 발견된 탑은 거의 온전한 상태이며, 흥덕사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탑과 도장, 유골 등의 발견을 통해 흥덕사가 운천동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고 봄 ▷ 유적이 발견된 곳은 흥덕사지보다 운천동 아파트 뒤쪽 산 (김태준) ▷ 청주는 1377년 직지를 만든 고장으로, 금속활자와 관련된 정체성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가치라고 강조함 ▷ 이번 유적 발견을 계기로 직지와 흥덕사의 역사적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한다고 제안함  청주시 국내 최초 고고학 대박... 운천동서 고려 '청석탑' 온전하게 ... v.daum.net 
	도선봉	- 흥덕사지 범위와 청석탑 관련 연구 확대 ▷ 청석탑은 푸른 돌로 만든 탑을 뜻하는 것으로, 단순한 고유명칭은 아니라고 설명함 ▷ 이번 유적은 흥덕사지의 범위를 넓혀 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 ▷ 흥덕사의 원래 위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발굴자료와 관련 데이터를 더 연구해야 함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적을 청주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청주가 세계적인 금속활자의 고장이라는 점을 내세울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

2. 청주 역사유적의 체계적 보존·복원과 개발로 인한 훼손 방지	도선봉	- 송절동 유적 등 선사·고대 유적의 매몰과 훼손 ▷ 송절동 유적은 청주의 초기 생활과 역사적 형성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원 ▷ 이 지역에는 500개 이상의 주거지가 밀집해 있었으며, 마한 이전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있었다고 봄 ▷ 미호강과 무심천이 만나는 까치내 주변은 청주지역 주민들의 삶이 시작된 곳으로 볼 수 있음 ▷ 이후 무심천을 넘어 현재의 원도심 지역으로 생활권이 이동하는 데 약 1천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 ▷ 이러한 중요한 유적이 개발 과정에서 묻혀버린 점을 지적함 ▷ 아파트 개발보다 훨씬 근원적이고 무한한 가치를 가진 역사자원이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함  “청주TP 송절동 유적은 청주 역사의 뿌리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25일 ‘청주TP 유적 보전 방안’을 위한... www.pressian.com  청주의 잃어버린 역사 ‘마한’, 송절동에서 보다 - 충북인뉴스 충북 청주에는 과연 언제부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일반적... www.cbnews.co.kr
	김태준	- 아파트 개발이 역사유적 훼손의 선례가 되는 문제 ▷ 풍납토성 개발 사례가 역사유적 훼손의 좋지 않은 선례가 되었음 ▷ 기존 유적지에 아파트 개발을 허용한 사례가 남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개발이 반복될 수 있다고 봄 ▷ 테크노폴리스 등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역사유적보다 아파트 건설이 우선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함
	이석호	- 획일적인 도시개발에 대한 문제의식 ▷ 청주시 주택의 약 4분의 3이 아파트일 정도로 도시가 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봄 ▷ 청주가 수도권 도시와 비슷한 형태로 변하면서 도시의 개성과 시민의 자부심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함 ▷ 전국의 도시가 비슷한 모습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청주만의 차별화된 역사와 공간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함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이석호	-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고향 기억 보존 ▷ 성안동·중앙동·우암동·내덕동·석교동·사직동·모충동 등은 청주의 오랜 생활사가 남아 있는 원도심임 ▷ 사직동과 모충동 등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기존 골목과 주거지, 주민들의 생활 흔적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음 ▷ 청주의료원 아래 사직동 일대에는 개발되지 않은 옛 마을의 모습이 일부 남아 있어 원도심의 생활경관을 확인할 수 있음
	이석호	- 사직동 등 옛 마을과 골목의 보존 ▷ 사직동 일대는 어린 시절과 학교생활의 기억이 남아 있는 개인적 고향이자 청주 원도심의 상징적인 공간임. ▷ 이곳마저 재개발로 사라지면 청주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추억과 고향성이 함께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함. ▷ 도시의 오래된 골목과 마을은 단순한 낡은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장소로 보존할 필요가 있음.
	이석호	- 근대건축물과 옛 도시 흔적의 보존 ▷ 일신여고 일대와 청주읍성 안에는 근대건축물과 일본식 건축물 등 옛 도시의 흔적이 남아 있음. ▷ 일부 건축물은 노후화되어 훼손되거나 철거될 위험에 놓여 있음 ▷ 용적률 완화와 고층건축 허용으로 근대건축물과 원도심 경관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음 ▷ 일신여고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근대건축물공원이나 기독교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이석호	- 재개발보다 생활경관을 살리는 도시재생 ▷ 원도심을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식보다 기존 골목과 마을의 모습을 살리는 도시재생이 필요함 ▷ 우암동은 재개발조합 해체 이후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내덕동 일대도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됨 ▷ 기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후속 사업을 지속해야 함 ▷ 다른 지역의 선진적인 도시재생 사례를 조사하고 청주의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김태준	- 우암동·내덕동 등 소외된 원도심까지 보존 범위 확대 ▷ 우암동과 내덕동도 청주의 원도심이지만 기존 원도심 정책에서 비껴나 있는 느낌이 있음 ▷ 특정 지역에만 집중하지 말고 우암동·내덕동 등 주변 원도심의 골목과 생활경관도 함께 살펴야 함 ▷ 내덕동 일대에는 월남전 참전주민들이 정착해 살아온 근현대 생활사가 남아 있음 ▷ 주민들의 정착 과정과 생활 이야기를 조사하고 기록해 지역의 역사자원으로 남길 필요가 있음
	윤미정	- 영운동 등 소외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관심 필요 ▷ 영운동을 비롯해 원도심 활성화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원도심을 행정구역별로 분리해 접근하기보다 청주의 생활사와 주민의 기억이 이어지는 하나의 공간으로 바라봐야 함
	이일호	- 원도심을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조성 ▷ 원도심을 새롭게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건축물과 골목, 생활경관을 보존하고 되살림 ▷ 원도심 자체를 지역민이 지키고 외부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함
	윤미정	- 중앙공원의 역사성과 공원 기능 통합 ▷ 중앙공원은 청주의 여러 시대 역사가 남아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고 생각함 ▷ 현재 중앙공원은 문화재가 있는 역사공간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원공간이 서로 분리돼 있는 모습임 ▷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중앙공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 ▷ 고려·조선·근현대의 역사를 함께 보여주는 역사테마공원으로 중앙공원의 가치를 부각할 필요가 있음
	도선봉	- 옛 골목과 정취를 살린 원도심의 고유성 확보 ▷ 충주 관아골은 과거의 정취가 남아 있고, 개발되지 않은 점이 오히려 새로운 가치를 갖게 된 사례 ▷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신축이 어렵고 골목의 형태가 유지되면서 독특한 공간이 형성되었음 ▷ 청주 원도심은 유동인구와 잠재력에 비해 관광·문화적 활력이 약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함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김태준	- 소도시 원도심 여행 사례를 통한 청주 원도심의 관광 매력 강화 ▷ 최근 20대 사이에서 국내 소도시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음 ▷ 공주·부여·충주·밀양 등의 소도시의 원도심의 옛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젊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음 ▷ 공주에서는 공산성이나 무령왕릉뿐 아니라 제민천 주변 원도심에도 젊은 방문객이 많이 모이고 있음 ▷ 공주 제민천 주변은 차 없이 걸어서 다니기 편하고, 원도심 자체가 관광의 매력을 가지고 있음 ▷ 청주 원도심도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 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u>공주 원도심</u>에서는 페스티벌, 야외 맥주행사, 하숙문화와 관련된 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음  공주 원도심 투어 제민천 가볼만한 곳 BEST 5 충청남도 공주... www.welfarehello.com
	윤미정	- 청년·상인·예술인이 함께 만드는 원도심 체류형 관광 ▷ <u>충주 관아골</u>은 작은 지역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면서 관광명소로 성장하고 있음 ▷ 관아골에서는 젊은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주 관광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음 ▷ 청주에서도 젊은 사람, 상인, 예술인이 함께 참여해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사업을 더 큰 규모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충주 관아골 구도심 골목 여행, '관아골 여름소풍' 행사 후기 충주의 구도심인 '관아골'은 오래된 골목과 건물, 아기자기한 공간들... blog.naver.com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김태준	- 근대건축물을 연계한 근대거리 및 투어코스 조성 ▷ 타 지역 사례와 청주의 한계 → 군산·서울·대구 등은 근대건축물과 거리를 관광자원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 → 청주도 근대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관광자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음 ▷ 내덕동부터 육거리·일신여고까지 근대건축물 투어 조성 → 내덕동에서 육거리까지, 또는 일신여고까지 이어지는 근대건축물 투어코스를 조성할 필요 → 근대건축물을 하나의 거리와 동선으로 연결해 시민과 관광객이 걸으며 둘러볼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선봉	- 수암골 마을의 역사·생활문화 가치 재조명 ▷ ‘수암골’이라는 명칭은 수동과 수암보 등을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실제 수동마을 원주민들은 이 명칭을 좋아하지 않음 ▷ 청주에는 월남민이 집중적으로 정착한 지역들이 있음 ▷ 수동마을은 경사지에 대지를 조성해 형성된 월남민 정착마을로, 주민들의 삶과 건축물이 남아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간 ▷ 수암골의 관광 이미지뿐 아니라 원주민의 생활사와 마을 형성과정을 함께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봄 ▷ 수암골의 활력이 약해지면서 새롭게 조성된 갤러리와 카페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함
	윤미정	- 원도심 역사·종교 순례코스 조성 ▷ 청주 원도심에는 기독교·천주교·불교와 관련된 장소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음 ▷ 원도심의 문화재와 종교시설을 연결해 역사·종교 순례코스로 조성할 수 있음 ▷ 역사테마 순례길을 통해 원도심의 역사와 장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윤미정	- 역사문화자원과 상권의 연계 ▷ 한복거리, 중앙공원, 향교, 육거리시장, 삼겹살거리 등을 역사문화 관광코스로 연결할 수 있음 ▷ 향교에서 예절문화를 배우고, 육거리시장과 삼겹살거리에서 먹고 즐기는 방식으로 체험형 관광을 구성할 수 있음 ▷ 육거리시장을 중심으로 석교동과 대성동 등 주변 지역을 종교 순례 구간과 연계할 수 있음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사문화자원뿐 아니라 상인과 상권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함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이석호	- 무심천과 연계한 도심 수목원 조성 ▷ <u>한밭수목원 이용 경험</u> → 대전에서 근무할 당시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한밭수목원을 자주 이용함. → 한밭수목원이 갑천의 물줄기와 연계되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공간으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음.  ▷ <u>청주 도심 수목원 조성 필요성</u> → 청주시청 재건축과 주변 부지 확보를 계기로 무심천 구역까지 연계한 도심 수목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도심 안에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아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봄. ▷ <u>원도심 활성화와 연계</u> → 청주 외곽지역이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원도심을 살리는 핵심 공간이 필요함. → 무심천과 연계한 도심 수목원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김태준	- 청주시청 전망대·카페 조성 제안 ▷ <u>대전시청은 상층부에 전망대와 카페가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이 주말에도 찾아와 머무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u>  ▷ 새로 건립되는 청주시청에도 전망대와 카페 등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함. ▷ 전망대가 조성되면 시민뿐 아니라 청주를 방문한 관광객도 시청을 찾고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함. ▷ 청주시청을 단순한 행정업무 공간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원도심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3. 원도심의 생활경관과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도시재생	도선봉	- 전망대 미반영과 향후 공간 마련 필요 ▷ 현재 신청주시청 설계에는 전망대가 반영되지 않음 ▷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리모델링 등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윤미정	- 야간·주말 개방을 고려한 운영방식 필요 ▷ 청주의 관공서는 오후 6시가 지나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시민들이 여가와 문화생활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은 주로 오후 6시 이후이므로, 행정기관의 운영시간만을 기준으로 하면 관광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청주시청 전망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야간과 주말에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이 함께 열려야 함
4. 청주 문화유산의 체험·교육·관광 기능 강화와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김태준	- 청주 3대 산성의 체험거리 부족 ▷ 청주에는 흥덕구 부모산성, 상당구 상당산성, 청원구 정북동토성 등 대표적인 산성이 있음 ▷ 각 산성은 시대별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상당산성은 남한산성, 공주 공산성, 수원화성처럼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지만 체험거리와 머물거리가 부족함 ▷ 정북동토성과 부모산성도 정비와 관리에 그치고 있어 방문객들이 산성 공간을 둘러본 뒤 나오는 수준임 ▷ 산성을 정비하는 것뿐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김향운	- 상당산성 가족형 주말 관광공간 조성 ▷ <u>상당산성의 활용 가능성</u> → 상당산성은 비나 눈이 올 때도 풍경이 좋고, 가족 단위로 아이들과 가볍게 둘레길을 걷기 좋은 곳임 → 계절과 날씨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어 가족형 관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음 ▷ <u>가족 참여형 주말 프로그램 필요</u> →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민들이 상당산성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단순히 둘레길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u>휴식·놀이공간·관광공간 조성</u> → 둘레길을 걷고 난 뒤 가족이 함께 먹고 쉬며 놀 수 있는 공간 필요 → 작은 텐트를 치고 식사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 → 상당산성을 멀리 떠나지 않아도 가족이 가볍게 찾아 주말을 보낼 수 있는 관광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4. 청주 문화유산의 체험·교육·관광 기능 강화와 역사문화관광벨 트 조성	도선봉	- 상당산성 장기 정비계획의 중단과 투자 필요 ▷ 2005년 상당산성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함. ▷ 당시 청주시와 문화재청이 각각 50억 원씩, 매년 총 100억 원을 투입해 10년 동안 1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었음. ▷ 상당산성 안의 개인주택이 있던 골짜기와 문주원 자리 등을 매입해 시유화함. ▷ 부지를 매입했지만 복원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상당산성은 남한산성보다도 형태가 뛰어난 산성이지만 그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하고 있음. ▷ 산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관련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존 기본계획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이어지지 못했고, 이후 정책의 중심이 중앙공원과 역사공원으로 이전된 부분이 있음.
	윤미정	- 명암저수지·명암약수터·상당산성 옛길 연계 ▷ 명암저수지와 명암약수터, 상당산성으로 올라가는 옛길을 연계해 활성화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명암저수지·명암약수터·상당산성 옛길을 하나의 연계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방향이 추진되고 있음.
	김태준	- 명암저수지 주차공간 부족 ▷ 명암저수지를 자주 방문하지만 평일과 주말 모두 주차할 곳이 부족 ▷ 명암저수지와 상당산성 일대를 활성화하려면 주차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함
	김태준	- 오송역·공항·터미널 연계 교통노선과 체험형 상당산성 조성 ▷ 상당산성의 관광 매력 부족 → 상당산성은 공주 공산성처럼 사람들을 끌어들이 수 있는 매력이 있지만 현재는 그 힘이 약함. → 방문하더라도 먹거리 외에는 체험하거나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함. ▷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 → 관광객이 상당산성을 찾으려면 터미널이나 KTX역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함. → 외부 방문객은 상당산성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기 어려움. → 오송역·청주공항·터미널에서 상당산성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시내 버스 노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말 체험프로그램 운영 → 상당산성에서 주말마다 수문장 교대식이나 간단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산성을 둘러보거나 백숙을 먹는 데 그치지 않고, 가족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거리가 필요함.

4. 청주 문화유산의 체험·교육·관광 기능 강화와 역사문화관광벨 트 조성	김태준	- 문의문화재단지의 체험기능 강화 ▷ 문의문화재단지도 현재는 시설을 보는 데 그치고 있어 체험거리가 부족함. ▷ 민속촌처럼 대장간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을 운영하면 아이들과 가족이 찾을 수 있음. ▷ 상당산성과 문의문화재단지 모두 볼거리뿐 아니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관광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박한나	- 청주 주요 문화유산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 문화유산의 가치에 비해 부족한 현장 체험 → 학교 교과서에서 용두사지 철당간과 직지·흥덕사지에 대해 배웠지만, 실제 방문했을 때는 유물만 덩그러니 있어 특별한 인상을 받기 어려웠음. → 성장한 뒤 해당 문화유산이 매우 중요한 유물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으며, 그 가치에 비해 현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청주에는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시민과 방문객이 그 의미를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함. ▷ 용두사지 철당간의 야간 명소화 → 용두사지 철당간에 미디어아트 등을 도입해 역사적 의미를 보다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음. → 야간에도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할 것을 제안 ▷ 상당산성의 역사 재현 프로그램 운영 → 상당산성에서 전통무예 시연이나 수문장 교대식 등을 운영 → 조선시대의 역사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방문객이 역사 현장을 경험하며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직지·흥덕사지의 지속적인 문화프로그램 마련 → 직지와 흥덕사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될 만큼 가치가 높지만 한번 방문한 뒤 다시 찾을 만한 프로그램이 부족함. → ‘기록의 도시 페스티벌’과 같은 행사를 운영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캠ป์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직지와 기록문화의 가치를 아이들과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주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 개별 문화유산을 각각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용두사지 철당간, 상당산성, 직지·흥덕사지 등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역사·문화·관광 콘텐츠를 통합해 청주의 주요 문화유산을 연결하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함.

4. 청주 문화유산의 체험·교육·관광 기능 강화와 역사문화관광벨 트 조성	이일호	- 주요 문화유산을 연결한 관광코스 개발 ▷ 직지·흥덕사지, 용두사지 철당간, 상당산성, 초정약수, 정북동토성, 무심천 등 청주의 문화유산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관광코스가 필요 ▷ 청주의 역사·문화·종교·건축 등 지역의 특징을 활용해 여러 형태의 여행코스로 구성할 수 있음.
	윤미림	- 세계적으로 오래된 소로리 법씨의 역사관광 자원화 ▷ 소로리 법씨에 대한 관심 → 독서모임에서 재레드 다이아몬드의 『총, 균, 쇠』와 청소년용 책을 읽던 중 청주와 관련된 내용을 접함. → 책에 청주 소로리에서 발견된 법씨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 관심 ▷ 소로리 법씨의 역사적 가치 → 소로리 법씨는 1997년에 발견됐으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씨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고 설명함. → 벼농사의 기원과 동아시아 농경문화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으로 소개되고 있음. ▷ 현장 방문과 활용 필요성 → 소로리를 직접 찾아가 카페를 방문하며 지역을 살펴봄. → 소로리 법씨가 가진 역사적 가치가 크지만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함. → 소로리 법씨의 역사와 발견 이야기를 청주의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박주은	- 오송의 역사적 이야기와 KTX를 활용한 관광콘텐츠 조성 ▷ 오송 지명의 역사적 의미 → ‘오송’은 다섯 그루의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으로, 신라 말기 학자가 소나무 다섯 그루를 음양오행에 맞춰 심은 데서 유래 → 해당 학자가 오송에서 후학을 가르쳤다는 역사적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고 있음. ▷ 오송의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 오송 지명의 유래와 지역의 역사적 이야기를 시민과 방문객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오송의 역사를 소개하는 박물관이나 관련 역사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독서감상 행사 등 역사적 인물과 문장을 활용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봄. ▷ KTX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 KTX를 이용해 오송을 찾는 방문객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오송역과 역사문화 공간을 연결해 오송의 관광 활성화를 도모 →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장터나 행사 등을 만들어 방문객이 오송에서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5. 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직지·철문화·공 예·문학·미술의 통합 연계	- 청주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미술관·문학관 확충 ▷ 청주문학관 부재 문제 → 청주는 금속활자의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청주문학관이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쉬움 → 과거 문학관 조성이 논의됐으나, 신동문 문학관으로 할 것인지 청주문학관으로 할 것인지 명칭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음 → 특정 문인을 기념하는 공간을 넘어 청주의 문학 전반을 담을 수 있는 문학관 조성이 필요함 ▷ 청주시립미술관의 공간 부족 → 옛 KBS 건물을 활용한 청주시립미술관은 전시공간이 매우 협소 → 공간이 좁아 대형 설치미술과 다양한 전시를 운영하는 데 한계 → 주차공간도 매우 부족해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 대규모 문화공간 조성 필요 → 대전시립미술관은 대전예술의전당과 넓은 문화공간, 수목 공간이 함께 조성돼 있어 청주와 큰 차이가 있다고 느낌. → 미술관은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함 → 청주시립미술관과 청주문학관을 보다 큰 규모로 계획해 예술의전당 등 주변 문화시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필요
---	--

5. 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직지·철문화·공 예·문학·미술의 통합 연계	윤미정	- 공예체험거리 조성과 생활 속 공예문화 확산 ▷ 유네스코 공예도시와 시민 일상의 괴리 → 청주는 유네스코 공예도시로 지정돼 세계적으로 공예도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 그러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공예를 구경하거나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함. ▷ 공예체험거리 조성 → 시민과 관광객이 거리를 지나며 다양한 공예작품을 구경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예체험거리가 필요함 →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상적으로 공예를 접할 수 있는 상설 공간을 마련해야 함. → 공예작품의 전시·체험뿐 아니라 제작과 유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문학·기록문화와 연계한 문화거리 조성 → 공예체험과 함께 문학과 기록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거리 조성을 제안함. → 직지와 기록문화, 문학, 공예를 연계해 청주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음. → 시민들이 기록하고 창작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정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공예도시 구현 → 공예도시 지정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생활과 관광 속에서 공예가 실제로 작동해야 함. → 청주의 공예문화가 전시·체험·제작·유통으로 이어지는 기반마련 →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에서 공예도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공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윤미정	- 청주의 철문화를 지역의 대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성화 ▷ 청주 철문화의 가치 발굴 → 청주는 고인쇄와 직지뿐 아니라 철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점을 함께 부각할 필요가 있음 → 청주의 토양에서는 철 성분이 많이 나타나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철문화가 중요한 지역자원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는 철문화의 역사와 의미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나 콘텐츠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함 ▷ 국립청주박물관의 철문화 기능 확대 → 국립청주박물관이 청주의 철문화와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고 활용도에도 한계가 있음 → 박물관의 철문화 전시와 체험 기능을 확대해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5. 지역 문화시설 확충과 직지·철문화·공 예·문학·미술의 통합 연계	김태준	- 국립청주박물관의 수장공간 부족과 특성화 방향 ▷ 수장고 포화와 지역 유물의 외부 보관 → 국립청주박물관은 개관한 지 오래됐고 공간이 협소해 수장고가 포화된 상황 → 충북 북부지역에 국립박물관이 부족해 충주·제천·단양 지역 유물까지 청주박물관이 함께 보관해 왔음. → 수장공간 부족으로 청주 인근에서 발굴된 문화유산 일부가 공주에 보관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 충주박물관 조성 이후 기능 재편 → 충주지역에 박물관이 조성되면 청주박물관에 있던 충주·제천·단양 지역 유물이 이전될 수 있음. → 이를 계기로 국립청주박물관의 역할과 전시 방향을 청주와 미호강 유역의 역사문화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고 봄. ▷ 미호강·제철·불교·금속공예 중심의 특성화 → 국립청주박물관은 미호강 유역의 문화유적과 진천의 제철유적 등을 연계한 방향을 갖고 있음. → 미호강, 제철문화, 불교공예와 금속공예를 주요 주제로 삼아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음. → 직지와 고인쇄뿐 아니라 철과 금속공예까지 연결하면 청주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더욱 폭넓게 보여줄 수 있음. ▷ 국립박물관과 지역 문화시설 간 소통 부족 → 국립청주박물관은 국립기관이어서 지역의 다른 문화시설과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 특히 직지 관련 박물관과 국립청주박물관 사이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각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기보다 직지·철문화·금속공예·불교공예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	---

6. 오송역·청주공 항을 청주의 관광관문으로 전환하는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윤미림	- 오송역을 청주의 첫인상과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 ▷ 오송역은 청주의 첫인상 → 오송역은 KTX를 이용해 청주를 찾는 방문객이 처음 접하는 공간으로, 청주의 첫인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함. → 오송역에서 청주로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청주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 ▷ 청주 관광정보 제공 부족 → 최근 연예인이 오송을 방문했지만 어디를 둘러봐야 할지 몰라 지역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 사례를 들었음. → 이는 오송역과 청주의 관광정보가 방문객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봄. → 오송역에서 청주의 관광지와 이동방법, 체험거리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체계가 필요함. ▷ 청주를 보여주는 관문 공간 조성 → 오송역에 도착하는 순간 청주의 역사·문화·관광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청주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 이야기를 안내하는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야 함. ▷ 스쳐 지나가는 역에서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 → 현재 오송역은 청주를 방문하더라도 잠시 거쳐 가는 공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음. → 방문객이 역에서 정보를 얻고 오송과 청주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체류형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오송역을 청주의 첫인상을 전달하고 관광객의 지역 체류를 유도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도선봉	- 청주 안에서 소외된 오송의 관광자원 ▷ 오송은 청주시 안에서 관광 측면에서 ‘내놓은 자식’처럼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느낌 (김태준) ▷ 오송에는 호수 주변의 문화적 요소와 천연기념물 등 관광자원이 있지만 충분히 발굴되지 못하고 있음 ▷ 오송호수공원은 벚꽃 경관이 아름답지만, 청주시가 무심천에 비해 오송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울이고 있다고 봄 (김태준) ▷ 오송의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청주시 관광정책 안에서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음

6. 오송역·청주공 항을 청주의 관광관문으로 전환하는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도선봉	- 역명과 도시브랜드의 불일치 ▷ 천안아산역, 김천구미역처럼 인접하거나 연계된 도시명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형 역명 사례가 있음 ▷ 이러한 통합형 명칭은 역의 위치와 도시브랜드를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함 ▷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시의 도시브랜드를 연결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 ‘청주오송역’ 명칭에 대한 필요성 ▷ 역명에 ‘청주’가 빠지면서 외부에서 오송의 위치와 도시적 연관성을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오송이라는 지명만으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청주오송역’이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기존 오송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 때문에 ‘청주오송역’ 명칭에 반대해 왔지만, 새롭게 유입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크지 않은 것 같음 ▷ 오송역 명칭도 ‘청주오송역’과 같이 청주의 도시브랜드와 오송의 지역성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명과 도시브랜드를 일치시키는 노력을 통해 오송과 청주의 인지도와 관광 연계성을 높일 것을 제안함
	박주은	- KTX 이용객의 체류시간에 맞춘 청주 관광상품 구성 ▷ 2시간 코스 오송 헬스케어 체험 → KTX 이용객이 열차를 기다리는 약 2시간 동안 오송에 내려 관광할 수 있는 코스를 제안함. →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스마트 헬스 체험장, 지역 맛집 등을 둘러보도록 구성함. → 청주를 방문 목적지로 삼지 않고 KTX로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오송에 머물도록 유도함. ▷ 5시간 코스 의료·카페·디저트 연계 투어 → 2시간 코스에 주변 농장카페, 대형카페, 장인 제과점 등을 추가해 약 5시간 코스로 확대함. → 청주에 많은 카페와 디저트 자원을 관광코스에 포함함. → 오스코에서 디저트 관련 행사가 열릴 때 전국 방문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봄.

6. 오송역·청주공 항을 청주의 관광관문으로 전환하는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박주은	▷ 계절별 당일치기 코스 시니어 건강관광 → 수도권의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KTX를 이용한 당일치기 건강관광을 제안함. → 기존 의료·카페 코스에 초정약수, 청남대, 미술관, 철당간, 상당산성, 공예체험 등을 연계함. → 관광상품을 구매한 방문객에게 지역 카페나 육거리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함. → 봄·가을 : 따뜻한 계절에는 철당간과 상당산성 등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함. → 여름·겨울 : 한여름과 겨울에는 미술관과 공예체험 등 실내 관광지를 중심으로 구성함. ▷ 1박 2일 코스 가족 체험관광 → 가족관광객을 대상으로 당일치기보다 1박 2일 코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초정 한옥마을을 확대·활성화해 숙박과 연계함. → 청주시동물원, 과학관, 공연시설, 어린이회관 등을 가족관광 코스로 연결함. → 청주시동물원은 구조동물을 보호하고 동물에 맞게 시설을 조성해 교육적으로 배울 점이 많은 공간이라고 설명함. → 청주의 카페와 디저트도 지역의 이야기를 만드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봄.
	박주은	-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 ▷ 청주는 KTX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 오송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2시간·5시간·당일치기·1박 2일 관광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청주공항과 오송, 청남대, 한옥마을 등을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연결할 수 있기를 기대함. ▷ KTX와 청주공항을 활용해 국내 관광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하는 방향을 제안함.
	이일호	- 오송역·청주공항과 연계한 K-헤리티지 관광 청주는 오송역과 청주공항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전철까지 연결되면 관광교통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 이러한 교통기반과 직지를 중심으로 청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 찾고 싶어 하는 청주만의 K-헤리티지 투어 브랜드를 만들어 홍보할 것을 제안함.

6. 오송역·청주공항을 청주의 관광관문으로 전환하는 체류형 관광체계 구축	김태준	- 오송역·공항·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관광지 직행버스 운영 ▷ 청주시민도 시내버스 이용을 불편하게 느끼는데, 외부 관광객은 청주의 버스체계를 이용하기 더욱 어려움. ▷ 동물원이나 상당산성 등 주요 관광지를 가려면 시내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오송역·청주공항·터미널에서 주요 관광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이 필요함. ▷ 별도의 시티투어버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기존 시내버스를 활용한 직접 연결노선이 현실적이라고 봄.
	이일호	- 외곽 주차장과 순환버스를 활용한 관광방식 ▷ 해외 도시는 외부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외곽에 차량을 주차한 뒤 지역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청주도 외곽에 대형 주차장을 마련하고 관광객이 순환버스를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줄이고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7. 지역 고유자원과 상권을 연결하는 로컬 관광콘텐츠 및 특화거리 조성	박한나	- 청원생명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 체험공간 마련 ▷ 청원생명 브랜드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치가 높은 청주의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라고 생각함. ▷ 청원생명 브랜드의 농산물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체험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방문객이 청주의 농산물과 지역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이해남	- 커피와 제과를 활용한 청주 대표 관광거리 조성 ▷ 부산의 침체된 거리가 커피를 통해 관광지로 활성화된 사례를 인상 깊게 보았음. ▷ 청주는 방문객이 어디를 가야 할지 망설일 만큼 대표적인 관광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 커피거리나 제과거리처럼 청주를 방문할 이유가 되는 특화거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김태준	- 인기 디저트 매장과 축제를 연계한 청주 디저트 투어 운영 ▷ 대전의 디저트 관광투어에 참여했을 때 관광코스가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평가함. ▷ 인기 있는 디저트 매장에서는 투어 참가자를 위해 상품을 별도로 준비하고, 관광지도도 제공하는 등 참여할 만한 장점이 있었음. ▷ 청주도 디저트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개별 매장과 지역을 연결하는 별도의 관광투어는 부족함. ▷ 청주의 디저트 매장과 제과점, 축제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마련하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봄.

7. 지역 고유자원과 상권을 연결하는 로컬 관광콘텐츠 및 특화거리 조성	김태준	- 청주의 관문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판매 ▷ 오송역이나 청주터미널에는 청주와 관련된 상품과 굿즈를 판매하는 공간이 거의 없음. ▷ 오송역에서 판매되는 상품도 다른 지역 업체의 제품으로, 청주를 보여주는 상품은 부족하다고 봄. ▷ 공주 산성시장의 지역 반티처럼,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일부러 지역을 방문하게 만드는 청주만의 굿즈가 필요함. ▷ 오송역·청주공항·터미널에서 청주의 역사·문화와 지역성을 담은 상품을 판매할 필요가 있음.
	김향운	- 상당구청 주변 가족형 공원 및 문화프로그램 조성 ▷ 상당구청 주변 공간의 활용 가능성 → 상당구청 주변은 넓은 부지와 좋은 경관을 갖추고 있음. → 유채꽃 등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방문해 사진을 찍는 장소로 활용 ▷ 체류형 프로그램과 공간 부족 → 현재는 방문객들이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 가족들이 머물면서 쉬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공간 부족 ▷ 계절별 가족 문화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날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절별 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가족형 공원 조성 제안 → 상당구청 주변을 대청댐 로하스공원처럼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함 → 작은 텐트와 그늘막을 설치하고 공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가족이 쉬고 즐기는 공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해남	- 마을버스형 교통수단을 통한 문암생태공원 활성화 ▷ 문암생태공원은 청주 도심에서 가깝고 잘 조성된 공간이라고 평가 ▷ 청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대중교통으로 찾아가기 어려움. ▷ 시민과 관광객이 문암생태공원을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청주 대표축제 육성과 민관협력형 관광정책 추진체계 구축	김태준	- 우후죽순식 축제를 정비하고 청주 대표축제 육성 ▷ 천안의 흥타령춤축제, 원주의 만두축제처럼 도시를 떠올리게 하는 대표축제가 청주에는 부족함. ▷ 청주의 축제는 수는 많지만 도시를 대표할 만큼 뚜렷한 정체성과 내실을 갖춘 축제는 부족하다고 평가함. ▷ 여러 축제에 예산을 분산하기보다 청주를 상징할 수 있는 대표축제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초정약수축제와 청원생명축제 등도 행사와 판매 중심에서 벗어나 축제의 주제와 지역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개편해야 함.
	이영미	-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축제 개편과 지속적 육성 ▷ 축제 폐지가 아닌 개편 필요 → 기존 축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봄 → 축제를 평가할 때는 주관자의 입장뿐 아니라 시민과 방문객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축제의 중요성 → 축제는 우선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어야 함 → 방문객이 늘어나면 지역이 알려지고 축제도 지속적으로 성장 → 축제를 한 번 개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마다 홍보와 콘텐츠를 보완해야 함 ▷ 괴산의 계절별 축제 운영 사례 → 괴산은 봄의 빨간맛 축제, 여름의 고추축제, 가을의 김장축제 등 계절별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음 → 인구소멸지역임에도 지역이 직접 축제를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함 → 여러 해 동안 축제를 지켜본 결과, 해가 거듭될수록 홍보와 행사 내용이 좋아지고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함 ▷ 지역의 대표 이미지에 집중한 축제 → 괴산은 고추의 빨간색을 중심 이미지로 활용해 축제의 색깔을 분명하게 만들었음 → 기존 고추축제와 김장축제에 이어 빨간맛 축제를 새롭게 운영 → 빨간 꽃인 양귀비 등을 활용해 축제 공간을 인상적으로 조성 → 청주도 지역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주는 주제와 이미지를 중심으로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김태준	- 이미 조성된 관광자원과 문화코스를 없애지 않고 활용 ▷ 청주에는 기존에 만들어진 문화코스와 관광코스 등 활용 가능한 자원이 많이 있음 ▷ 기존 자원을 충분히 살리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소비로 연결할 수 있지만, 이를 자꾸 없애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 새로운 시설과 행사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의 흔적을 보존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시민계획단 활동 기록



부문별 워크숍 일정 안내



단원소개 (1)



단원소개 (2)



단원소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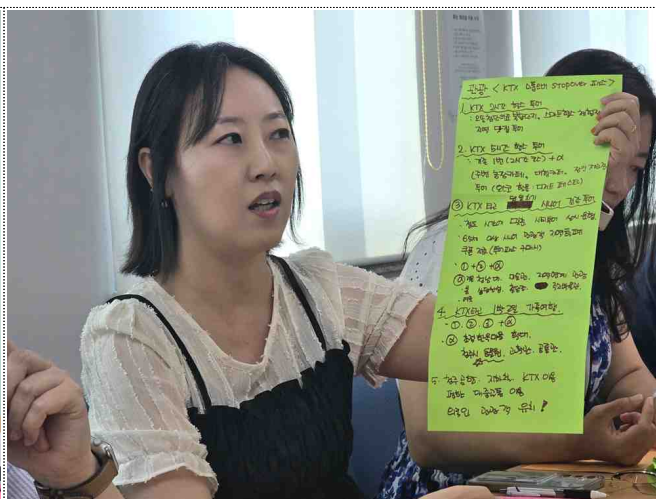
현안의제 공유 (1)



현안 의제 공유 (2)



현안의제 공유 (3)



현안 의제 공유 (4)



현안 의제 공유 (5)



현안 의제 공유 (6)



단체사진 (1)



단체사진 (2)

1. ... (text) ...

2. ... (text) ...

3. ... (text) ...

4. ... (text) ...

5. ... (text) ...

6. ... (text) ...

7. ... (text) ...

8. ... (text) ...

9. ... (text) ...

1차 소모임
2026. 8. 2 (일) 14:00

10. ... (text) ...

11. ... (text) ...

12. ... (text) ...

역사
·
문화
·
과학

13. ... (text) ...

14. ... (text) ...

15. ... (text) ...

16. ... (text) ...

[모두의 계획 2045] 청주도시기본계획 시민계획단 부문별 1차 소모임 참석 명단

- 일 시 : 2026년 8월 2일(일) 14:00
- 장 소 : 청주대학교 미래창조관 201호

[역사 · 문화 · 관광] 부문

※ 부문별 팀 일반단원은 접수번호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번호	접수번호	이름	생활권	진행위원	서명
1	4	도선봉	서원	퍼실팀장	도선봉
2	54	이영미	도심	기록팀장	이영미
3	127	김향운	상당	미디어팀장	김향운
4	23	이일호	상당	일반단원	이일호
5	37	윤미정	상당	일반단원	윤미정
6	47	조미정	청원(오창)	일반단원	조미정
7	48	전명순	서원	일반단원	
8	57	오재만	흥덕	일반단원	
9	96	이해남	서원	일반단원	이해남
10	124	박주은	흥덕(오송)	일반단원	박주은
11	125	윤미림	흥덕(오송)	일반단원	윤미림
12	126	박한나	흥덕(오송)	일반단원	박한나
13	135	이석호	상당	일반단원	이석호
14	157	김태준	청원	일반단원	김태준
15	181	유준상	도심	일반단원	